

광주 민간공원 아파트 1만 2000채 쏟아진다

말 많고 탈 많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행정 절차가 9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가 9개 도시공원을 10개 지구(사업 대상지)로 나눠 선정한 우선협상 대상자들과의 사업 협약 체결(본계약)을 16일 모두 마무리지으면서다.

올 하반기 마북공원 아파트 1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에서만 아파트 1만 2000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분양 경기 위축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 분양 시기를 앞당길 여지도 있다. 노르자위로 평가받는 일부 민간공원에서는 건설사 사업제안서 기준, 평당 최고 2046만원에 달하는 초고분양가 아파트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광주 집값 상승 견인을 억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양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10개사와의 협약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광주시는 수량공원(오렌지아일랜드), 마북(호반베르디움), 봉산(제일건설), 송암(고운건설), 일곡(이지건설), 운암산(우미건설), 신용(산이건설), 중앙 2지구(호반건설), 중외(한국토지신탁) 등 9개 대상지 우선협상자와 사업협

9개 공원 10개 지구

16일 본계약 모두 마무리

하반기부터 분양 돌입

일부 2046만원 초고분양가

집값 억제 대책 마련 목소리

약 체결을 한 바 있다.

사업 협약 체결은 본계약 성격이지만 효력은 우선협상자들이 각각 추정 토지 보상비 80%를 광주시에 예치하고, 토지 보상 예치금의 10%를 사업 이행 보증금으로 광주시에 납부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현재 대상지 10곳 가운데 6곳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됐고, 광주시는 남아 있는 중외·수량·송암·중외공원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0개 대상지 토지보상 예치금 총액은 86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10%인 880억원의 건설사들이 사업 이행 보증금으로 시에 맡기게 된다"며 "예치금, 이행보증금이 납부되고 사업 용역비 등 지점짓 투입된 건설사 비용을 고려하면 특례사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올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효력이 해제되는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비공원시설)를 지어 사업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행자 지정 후 공원 조성계획 수립, 토지 보상, 실시 계획 인가·고시 등 절차를 거쳐 공사가 시작된다.

건설사들은 6월 전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에 들어가는 등 아파트 분양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3년까지 9개 공원 10개 사업 대상지 공원 전체 면적 786만8000㎡의 90.3%(710만4000여㎡)는 공원으로 조성돼 광주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남은 9.7%(76만3000여㎡) 부지에는 아파트 1만 2000여 가구가 건설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부지의 30% 이내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광주시는 개발 면적을 20% 이상 줄이고 전체 면적의 90%를 공원으로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이달 말 판가름

2020년 1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 31일 열려

한전공대(가칭) 법인 설립이 이달 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1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교육부는 17일까지 한전 측으로부터 대학 설립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받고 검토를 통해 심사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전공대 재원·교원 확보 등과 관련된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위원회의 심사 여부에 따라 법인

설립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앞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을 초대 이사로 선임했고, 이사 7명·감사 후보 2명 등 임원진 9명을 선출했다. 교육부에서 학교법인 인가결정이 나오면 한전공대 측은 인가를 내 3개월 안에 이행사항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학설립 등기서류, 재산확보명세서 등 이행 조건을 충족하면 비로소 학교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전공대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 부지에 학생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설립 예정이며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인근 농경지 등 80만㎡ 부지에 조성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6일 광주시 북구 임동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2020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폐회선언을 하려 단상으로 가는 윤중해 광주본부 의장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보이콧 선언 勞 ... 달래기 나선 市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 좌우할 '노사 상생' 난항

노동계 "국회 가서 실태 고발" ... 이 시장 "추진과정 시행착오"

광주형일자리 성공의 가능성으로 여겨지는 노사 상생이 요원해지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에서 노동계의 제도적 참여와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업 보이콧을 하고,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이용섭 시장은 이번이 설득에 실패하면서다.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16일 임동 광주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계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노동이사제 도입, '반 노동계' 현대자동차 추진 임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업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의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취지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가 아니다"며 "높고 낮음이 없는 사회 통합형 광주형 일자리는 함께하지만, 이에 반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어 "(광주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알맹이 없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 없다"며 "지

역에서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와 청와대로 가서 (노사 상생 정신이 부정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실태를 고발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축사를 한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노동계와 함께 일궈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노동계가 자동차 공장 착공식에 불참해 시민은 물론 국민들이 공장의 미래를 걱정한다. 광주를 믿고 2300억 원을 투자한 주주들의 격정도 많다. 기다리는 청년들도 애를 태운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노동계와 상생 동반자로서 갖는 진정성은 흔들린 적이 없다"며 "다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에서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고 노동계가 섭섭한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낮은 자세로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노동계 의견이 적극적

으로 반영되고 지속해서 연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혁신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대의를 보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형 일자리 첫 적용 사업장인 주글로벌모터스 출범 이후 노동계는 광주시가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사업 불참을 선언하고 지난달 자동차 공장 착공식에도 불참했다.

한국노총 등 지역노동계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준수,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노사 책임경영 등을 요구하며 사업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광주형일자리를 '반값 임금,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노동계는 '노사가 함께 희생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함께 하겠다'며 사업의 한 축을 자임해왔으나, 광주시와 글로벌모터스 측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투자자 위주로 사업을 꾸려간다면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독고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 JeollaNamdo

실 선물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남도장터는 청정 남도의 친환경농·수·축산물을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전라남도 대표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최대 60% 할인

검색창에 남도장터 검색

www.jnmail.kr